

31장 회막을 만들 사람과 안식일 규례

31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이 두 번 더 나온다(31:1, 12). 25-31장에서 이 표현이 일곱 번 나온다고 하였는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나온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와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과 관련하여 나오고, 일곱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는 대목에서 나온다. 이러한 구조는 회막을 만드는 일이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1. 회막을 만드는 사람과 그들이 하는 일 (31:1-11)

회막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시는 일로 시작한다.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회막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더 지혜롭게 되었다.

브살렐이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오홀리압을 세워서 브살렐과 함께 일을 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막 짓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였다. 브살렐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회막 건설의 일을 하였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신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7-11절에서 회막을 만드는 일을 하나씩 다시 열거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만들도록 하셨다.

2. 안식일 규례 (31:12-17)

성막 규례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끝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는 말이 일곱 번째로 사용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세 번 나온다. 첫째,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31:13) 하셨다. 안식일은 ‘여호와와 안식일’ 이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신 것을 ‘여호와와 안식일’ 이라고 하면서 그 안식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신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맺은 대대의 표징이고, 여호와와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31:13) 하고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호와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

둘째, 안식일이 그들에게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고 하셨다(31:14). 그날은 거룩한 날이므로 그 날을 더럽히는 자, 곧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질 것이다. 제7일은 ‘큰 안식일’ 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이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31:14).

셋째,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고 하였다(30:16). 안식일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여호와께서 제7일에 쉬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분의 안식에 참여해야 하였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근거로 창조를 제시하기도 하고(출 20:10-11), 출애굽의 구원을 들기도 하였다(신 5:14-15). 성막에 관한 교훈이 안식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성막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지향함을 알려 준다. 안식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그 핵심을 누리게 하였다.

3. 증거판을 주심 (31:18)

여호와께서 회막에 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완성이다. 따라서 회막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주셨다. 그 증거판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었다.

묵상과 실천:**교회의 일과 영원한 안식****1. 성신과 교회의 일**

회막의 건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신의 사역이다. 성신께서 브살렐에게 충만히 임하였고, 그와 함께 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함께 회막 건설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성신의 전인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신께서는 회막 건설을 위하여 브살렐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신의 전인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다면, 자기만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2. 회막과 영원한 안식

회막의 모형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곱 번 말씀하시는데 처음 여섯 번은 성막에 관해 말씀하셨고(25:1; 30:11, 17, 22, 34; 31:1),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셨다(31:12). 이것은 성막이 창조의 일과 연관이 있음을 강하게 나타낸다.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으로 끝나는 것처럼 성막의 건설도 안식으로 끝난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막 건설을 재창조의 관점에서 본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 사이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재창조의 일인 것이다.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안식일이고 성막의 건축을 기록한 35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도 안식일이다. 이처럼 성막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다.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로 요약되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를 가리킨다(히 9:11, 24).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시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의 마지막 부분은 성전에 관한 내용으로 끝난다(시 91:12-15).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인도한다. 안식일의 정점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한다. 미래에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다(히 4:10).

3/장 익힘 문제

1. 1) 여호와께서 회막 기구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2, 6절)
- 2) 브살렐과 오홀리압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도록 하셨습니까? (6절)
2. 1) 여호와께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규례는 십계명 가운데 어떤 부분입니까? (13-17절)
- 2)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와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 3)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